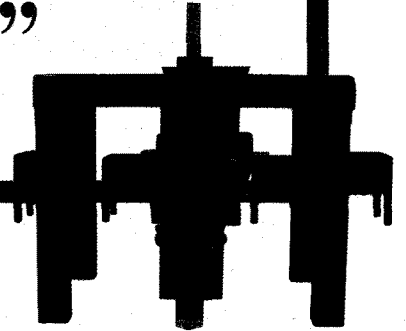


# 조학균 신부의 “미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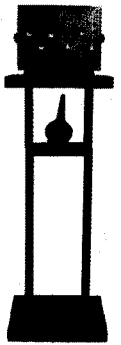
※ 주 : 평화신문에 연재된 조학균 신부님의 "미사 이야기"입니다.

## 8 - 감실

‘감실’은 본래 도교와 불교에서 사용되던 용어다. 사당 안에 신주(神主)나 부처상 등을 모셔두는 장(藏)을 가리키는 말인데,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는 이 용어를 받아들여 예수님 몸인 성체를 모셔두는 작은 방을 감실이라 부른다.

### 감실의 의미와 위치

교회에서 감실의 위치와 활용에 대한 정확한 문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7~8세기에 이르러 성체가 제의방에 보관되고 있었다는 일부 교회 문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축성한 빵을 쉽게 보관하는 곳으로 제의방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13세기에 들어오면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벽면에 붙은 감실이 등장하게 된다. 안전성을 고려한 이 벽면 감실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후로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예술적이고, 신자들에게 더 가까이 보이기 위해 벽에서 분리시켜 “가능하면 성당 안이 아니라 따로 경당을 만들어 거기에 감실을” 자리잡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경당을 마련할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성당 안의 뛰어난 자리에 모시라고 교도권은 말하고 있다. 여기서 “뛰어난 자리”가 성당의 중앙 위치, 즉 제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성체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용하면서 기도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조학균 베드로 신부  
예수회, 전례학 박사

감실은 성체를 모셔두는 자리다. 성체를 따로 모시는 까닭은 병자에게, 어떤 사정으로 인해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신자에게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미사 때 신자들을 위해 충분한 제병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또한 미사 때 남은 성체를 보관하기 위해서도 감실이 이용된다. 감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 위에서 거행되는 성찬례와 그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파스카 신비를 신자

들에게 상기시키는 데 그 본래 목적이 있다. 즉, 제대와 연계되지 않은 감실, 성찬례와 상관없는 감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감실이 신자들의 눈을 제대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감실의 본래 존재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감실 앞에 앉는 것은 **파스카 신비를 묵상하기 위함**이며, 신자들이 제대와 감실 사이에서 혼동을 겪지 않도록 감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실이 있는 경당을 제대 근처에 마련해 사제가 쉽게 감실 경당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미사 중 성체를 가지러 가거나 남은 성체를 다시 갖다 놓을 때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며, 신자들은 아늑한 분위기의 경당에서 더 쉽게 성체조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9 - 독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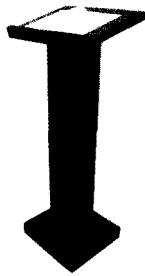
독서대는 독서하는 자리로서,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독서대에서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을 교우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경청한다. 독서대의 중요성은 교회 지침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역사와 분명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독서대가 전례 안에서 올바르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 성경 봉독은 언제나 독서대에서 한다.” 따라서 제대나 해설대에서 하지 않도록 한다. 독서대는 말씀의 식탁으로서 성당 안에서 제대와 함께 전례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이다(간추린 미사 전례 지침, p.18).

복음을 포함한 독서는 반드시 독서대에서 봉독돼야 하고, 화답송과 보편지향기도도 독서대에서 행하기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독서대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성당 안에서 말씀의 품위에 맞갖은 특별한 위치, 곧 모든 교우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높고 고상한 곳에 설치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장소는 성당의 중심인 제대 가까운 곳이 좋다.

독서대의 재료는 제대와 조화를 이루는 고상하고 튼튼한 것이 좋으며, 크기와 모양은 성당의 구조에 따라 설치하되 제대의 크기와 모양과 균형 있는 짝을 이루게 한다.



독서대는 해설대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배치돼야 한다. 또한 독서대는 여러 전례를 거행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주변에 충분한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명의 봉사자가 독서대 주위를 둘러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제대와 같이 독서대도 바닥에 고정시킨 독서대가 바람직스러우나, 이동 독서대도 가능하다. 독서대는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독서대의 본 기능은 미사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음향 시설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성당에 있는 모든 이가 사제나 봉사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독서자들이 봉독하는 하느님의 말씀과 사제의 강론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명확히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10 - 독서자

하느님 말씀을 자신 있고 신념에 차서 선포한다는 것은 강심장의 소유자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 앞에서(가족이나 알고 있는 신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앞에 두고 자신 있게 하느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 ‘선택된 독서자’라는 자부심

어려워하는 분들은 집에서 여러 번 독서 내용을 숙지한 후 가족 앞에서 한 번 연습을 해 보면 한결 좋아질 것이다. 또 ‘선택된 독서자’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독서자에게는 독서를 부탁하기 전에 독서자의 임무나 자격에 대해 설명해 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에서는 말씀전례에서 성경을 읽어, 전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사람들을 독서자라고 한다. 성경이란 글자 그대로 거룩한 말씀이며, 거룩한 책을 읽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독서자는 성경 본문을 정독하며,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독서와 복음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하느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올바른 독서를 하기 위해서 독서자는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충분히 읽고 이해해야 하며, 자신감을 갖고서 하느님 말씀 선포자 자격으로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회중들



앞에서 자신감이 결여돼 떨리는 목소리로 봉독해 나간다면 듣는 이들은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기에, 독

서자들은 임무를 수행할 참된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한다. 신자들이 거룩한 독서를 들으면서 성경에 대해 맞들이며 마음속에 살아있는 감동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다.

알맞은 독서자가 없을 때는 주례 사제 자신이 독서를 낭송할 수도 있다. 독서자는 독서 후에 화답송 낭송자가 따로 없을 경우에 화답송을 낭송한다. 독서자는 평신도일 지라도 미사 집전 중에 고유 직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보다 높은 계층의 직무 수행자가 있더라도 스스로 자기 고유의 직무를 수행한다.

한국 교회는 여성에게도 복음 전 독서들을 봉독하고 보편지향기도를 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교회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 11 - 미사보

여성 그리스도인들은 미사에 참여할 때 머리에 미사보(흰색이 주종을 이루지만 연한 살색이나 검정색도 있다)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필자는 미사를 봉헌할 때 여자교우들이 미사보를 쓰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아름답다는 말을 자주한다.

하지만 교회 내 여성차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며, 외국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미사보를 왜 한국 교회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 한국 신자들(주로 성지순례단)이 미사보를 쓰는 것에 대해 현지인들도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미사보 사용이 의무인 것은 당연히 아니다. 교회법에 '미사에 참례하는 여성은 미사보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미사보를 쓰지 않고 미사에 참례했

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분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전례 도착화 입장에서 볼 때 미사보 사용은 도착화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또 새 영세자들에게 예쁜 미사보를 선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 미사보의 의미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베일) 관습은 구약 시대(창세 24,65)에는 자신이 미혼임을 상징했다.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남자 역시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얼굴을 가렸음을 알 수 있다(탈출 3,6/1열왕 19,13).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여성 신자들이 교회 공식 예절 때 머리를 가리는 관습이 시작된 것은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11장)에서 이를 공적으로 언급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바오로는 교회 공식 예절에 참여할 때 여성들의 머리를 가리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 풍습일 뿐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의 의미는 아니다.

사실 여인의 머리는 남편의 영광으로 인정되며, 머리카락은 세속적 사치로 여겨졌기에 하느님이 계시는 성소(聖所)에서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소박한 생활과 정숙한 몸가짐의 표현**으로 미사전례 때 미사보를 사용하게 됐다. 미사보의 흰 색상은 세례성사를 통해 깨끗해졌다는 순결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화려하게 치장된 머리를 가리는 것은 정숙함과 겸손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수도자들이 쓰는 베일은 3세기경부터 그리스도와 맺은 영적 혼인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주교들이 베일을 축성하여 동정녀들에게 나눠 준 데서 유래한다.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자들의 베일은 그리스도의 정배로서 세속적 사치와 욕망, 허영 등을 끊어버리고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 포기하고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다음 호에 계속 -